



‘金값’ 된 김 가격 전남 김산업 ‘훈풍’

‘검은 반도체’로 일컬어지는 김 가격이 그야말로 ‘금(金) 값’이다.

한국 김과 김밥이 웰빙식으로 전세계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김 최대산지인 전남도에서 생산된 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5배 가까이 급등했다.

해외에서 김을 ‘블랙 페이퍼(Black Paper·검은 종이)’라고 부르며 외면하던 현상은 이제 먼 과거가 됐다. 식품업계의 잇따른 러브콜로 전남 김산업 전망은 장밋빛이다. ▶관련기사 5면

3월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도내에서 2024년산 김은 총 35만6천931t, 금액으로는 6천703억원 어치가 생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량은 4% 늘었고 생산액은 69%나 급증했다. 평년(최근 3년 평균값) 보다 89%나 폭등한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 국가에서 2023년 124개 국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남에는 해남 592호, 신안 504호, 진도 479호를 비롯, 12개 시·군 총 2천702호의 어가가 김을 양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남산 김 생산량은 전국의 78.6%, 생산액으로는 88%를 차지한다.

수출 역시 매년 파죽지세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남 김 수출액은 9천668만4천달러로 1년 전보다 61%, 10년 전에 비해 461.7% 폭증했다.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김 산업을 목표로 세계화,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해남군, 신안군, 장흥군, 진도군 등 4개 지역이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 전국 ‘김 산업진흥구

지난주 120kg 1망 31만2천원...전년비 140% ↑
전남 전국 생산량 79%·생산액 83% 최대 산지
세계화·경쟁력 강화 지속가능 산업 육성 총력

생산액이다. 특히 김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고 있다. 통상 김은 10-12월에 나오는 곱창김이 1-4월 생산되는 일반김보다 훨씬 비싸다. 하지만 수요 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전남에서 생산된 물김 1망(120kg)은 31만2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0% 올랐다. 곱창김이 생산되던 지난해 11월 2째 주보다 33.3%, 올해 초와 비교하면 77.2% 상승했다.

지난해 마른김·조미김 등 국내 김 수출액은 22.2% 증가하며 1조원(7억7천만달러)을 돌파했다. 수산식품 수출역사상 단일 품목 최고 실적이다. 한국산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6%(2022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김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8.1% 증가하는 등 인기 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했다.

역 5곳 중 80%가 전남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 사업인 ‘김 산업 진흥구역’은 김 생산·가공, 수출 분야의 성장 여건이 충분한 지역을 지정하고 생산·가공·수출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김 품질등급제 시행으로 품질 향상을 꾀하고 마른김 가공업체에 대한 기계장비 및 국제식품 인증비 지원 등으로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김 산업 확대를 위해 목포 대양산단에 2025년 수산식품 수출단지 준공하고 2026년엔 마른김 거래소를 개장할 계획이다.

박영재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고부가가치산업인 김 양식의 원활한 생산·수출을 위해 김 생산 면허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조국혁신당 ‘태풍’ 실제 투표에도 몰아칠까

총선 D-6

광주·전남을 강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태풍’이 실제 투표에서도 몰아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맞물려 데다,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 입소문까지 더해져 ‘바람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돼 5일부터 시작되는

각종 여론조사 광주·전남 지지율 40% 상회

‘지민비조’+민주당 실망감 맞물려 ‘바람몰이’

내일부터 사전투표...지역 유권자 선택 관심

사전투표와 10일 본투표까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광주매일신문이 광남일보·남도일보·전남매일·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에 의뢰해 최근 4차례에 걸쳐 4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

신당은 40% 안팎의 지지율을 얻었다.

실제 광주 광산을 선거구를 대상으로 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45.3%’(3월31일-4월2일 503명 통산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988%, 유선RDD 12% 자동응답조사, 응답률 57%, 표본오차 ±4.4%p), ‘40.8%’(3월21일-22일 503명 무선가상번호 100% 자동

응답조사, 응답률 78%, 표본오차 ±9% 신뢰 수준 ±4.4%p)를 기록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도 조국혁신당은 ‘46.0%’(3월21일-23일 502명 통산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988%, 유선RDD 12% 자동응답조사, 응답률 74%, 표본오차 ±5% 신뢰 수준 ±4.4%p)의 지지를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순천·광양·곡성·구례을(3월17일-18일 520명 통산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100% 자동응답조사, 응답률 91%, 표본오차 ±9% 신뢰 수준에 ±4.3%p)에서 ‘39.8%’,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40.1%’(3월15일-16일 503명 통산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100% 자동응답조사, 응답률 106%, 표본오차 ±9% 신뢰 수준 ±4.3%p)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의 광주·전남지역 지지율은 전국 지지율(25% 안팎)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여론조사 시기별로 볼때 시간이 갈수록 조국혁신당의 지역 내 지지도가 상승하는 양상이다. 이는 광주·전남 유권자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비례대표 정당에서 결국 더 불어민주당연합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지역구 후보는 별 다른 대안이 없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만, 비례대표 정당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를 통해 민주당에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전남에 보여주던 행태와 공천 과정에서의 잇따른 잡음 등으로 인한 실망감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타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에서 확인되고 있는 높은 지지율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투표용지 검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오전 광주 서구선관위에서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선관위 “3일까지 조사 결과는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 총 1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oday

전남아열대작물 재배 현주소... 9면
‘도전’ 청년창업기를 만나다 12면
신지에 ‘파리올림픽 대표 자신감’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